

과학과 인생관(현학) 논쟁*

허남진 · 박성규
(서울대학교 철학과)

1. 서론

중국사상계에 1923년 발생한 “과학과 인생관(혹은 玄學) 논쟁”(科玄論戰)은 중국현대사상사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그 논쟁은, 근대 중국이 서양과의 접촉에서 받은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추스려 주체적으로 사상적 방향을 정립하려는 최초의 역동적 자기 성찰 작업이었고, 실제로 현대신유학의 탄생을 예고한 역사적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19세기 중엽이래 주권 상실의 굴욕적인 사건들을 연속해서 맞이했다. 아편의 확산 폐해를 고심하던 청 왕조는, 임칙서(林則徐)를 광저우에 파견하여 아편의 국내 반입을 금했다.¹⁾ 그러나 임칙서가 영국인들이 반입하려는 아편을 소각하자 영국은 아편전쟁을 일으켰다. 이후 중국은 영불 연합군의 북경입성, 남경조약(1842), 홍콩 할양, 광둥·상해 등 5개 항구의 개항²⁾, 북경조

* 이 글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과제지원 연구비에 의한 결과물임.

- 1) 임칙서는 빅토리아 여왕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영국에 아편을 팔며 사 피우도록 국민을 유혹한다면 여왕께서도 틀림없이 분노할 것이다”는 서한을 보내며 원천 금지를 호소했지만, 영국은 아편은 상품이며 사는 자가 있으니까 파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자에게 억지로 파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관철시켰다.
- 2) 아편의 주요 밀매 항이 상해로 옮겨지면서 실업이 발생했고, 그것은 태평천국의 난(1850-64)이 발생한 주요 원인이었다. 이 난으로 2000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야자키 이치시다, 조병한 역, 『중국사』, 역민사, 서울, 1983; 『옥스퍼드 중국사』)

약(1860),³⁾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일본 등과의 불평등 조약 등등을 감내해야 했다. 이처럼 중국 역사상 일찍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이어졌던 것이다. 결국 조세권, 채광권, 관세권, 치외법권, 체신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주권을 상실하자 국가의 기강은 급속히 무너져내렸고 오랜 문화적 자부심은 뿌리째 흔들렸다. 이제 중국은 생존을 위해 서양(“오랑캐”)의 학문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근세 중국이 서양의 신학문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① 과학기술, ② 정치, ③ 문화, 혹은 ① 양무운동(洋務運動)⁴⁾, ② 무술개혁⁵⁾과 신해혁명, ③ 5·4 신문화 운동의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⁶⁾

근대 공업 건설을 주관한 양무파 지식인들은 청 왕조의 통치를 유지하고 중국의 전통적 강상명교(綱常名教) 윤리를 유지할 목적으로, 서양의 과학 기술을 다만 국가의 물질적 부강을 이룩해 줄 수단이자 전통적 관념에 대한 믿음과 가치체계를 유지해 줄 도구로만 간주하였다(“東道西器”). 그들은 여전히 서양의 과학 기술 안에 함축된 과학정신과 전통적 인생관 사이에 어떤 모순과 충돌이 존재하는지 인식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중국학문을 체로 삼고 서양학문을 용으로 삼는다(中體西用)”는 논리는, 서양학문과 중국학문(전통 유학)의 관계에 대한 당시 일반 사람들의 인식을 대표했다.⁷⁾

물질 방면의 부국강병 정책 뿐 아니라, 정치체제의 혁명을 추진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관점은 여전히 “동도서기” “중체서용”의 논리였다.

중국학술은 심오하여 ‘강상명교’를 비롯하여 경전의 위대한 법도가 구비되어 있지

3) 이 조약에 의해 아편무역은 합법화되어 3000만명이 수시 흡연자, 1500만명이 중독자로 전락했다. 중국 전 인구의 10%가 아편에 빠져든 것이었다.
 4) 태평천국의 난과 애로호 사건 등을 통해 서양문명의 위력을 실감한 청조의 증국번(曾國藩), 이홍장(李鴻章) 등이 군사, 과학, 통신 등 각 분야의 근대화를 꾀한 운동.
 5) 무술변법(戊戌變法). 1898년 덕종(德宗)의 지원을 받은 강유위, 담사동 등이 일본 명치유신을 본받아 일으킨 변법 자강 운동. 서태후를 옹립한 보수파에 의해 덕종이 유폐되고 담사동이 처형되고 강유위가 일본으로 망명하자 103일만에 좌절됨.
 6) 李澤厚, 김형중 역, 『중국현대사상사의 굴절』(지식산업사, 1992), 262쪽.
 7) 劉長林, 『中國人生哲學的重建』(華東師範大學出版社, 上海, 2001), 384쪽.

않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다만 서양인의 조예를 취하여 우리의 미비점을 보충하면 족하다.—장지동(張之洞, 1837-1909), 「권학편(勸學篇)」⁸⁾

윤상명교(倫常名教:綱常名教)를 근본으로 삼고, 서양 나라의 부국강병의 술책으로써 그것을 보충한다. —풍계분(馮桂芬, 1809-74), 『교빈려항의(校邠廬抗議)』

서구의 기수(器數)의 학문을 섭취하여 우리의 요·순·우·탕·문·무·주공·공자의 도를 수호한다. —설복성(薛福成, 1838-94), 『주양추의(籌洋芻議)』 「변법」

중국학문은 근본이고 서양학문은 말단이니, 중국학문을 위주로 하고 서양학문을 보조로 삼는다. —정관응(鄭觀應, 1842-1922), 『성세위언(盛世危言)』

즉 서구의 공업 과학기술 및 정치제도는 이용의 대상일 뿐인 ‘기(器)’, 즉 말단에 불과하고, 중국이 의지해야 할 도(道), 즉 근본(本)은 강상명교(綱常名教)로 대표되는 중국학문이라는 것이다.⁹⁾ 서구의 민주주의나 자유 평등의 이념 등을 수용하여 사회 정치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그 기반은 전통의 공맹 유학이라고 여겼으니, 여전히 “탁고개혁(托古改制: 옛것에 근거한 제도개혁)”을 표방한 셈이다.¹⁰⁾ 따라서 중국학문과 서양학문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한 이해가 매우 피상적이고 낮은 수준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19년의 5·4 신문화운동에 이르면 근본 변화가 일었는데, 그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구호가 ‘과학’과 ‘민주’였다. 이 가운데 과학의 의미를 둘러싸고 5·4운동 이후 한 바탕 일어난 논쟁이 “과학과 인생관 논쟁”이다. 이는 5·4운동 이후 5·4 기본 이념에 대한 사상계의 성찰작업이었다.¹¹⁾

8) 유장림, 같은 책, 384쪽에서 재인용.

9) 양계초는 이렇게 개괄하였다. “중국학문은 내학(內學)이며 서양학문은 외학(外學)이다. 중국학문은 심신을 다스리며 서양학문은 세속의 일을 다룬다. … 성인의 마음을 가지고 성인의 행동을 따르며 효제충신을 덕으로 삼고 군주를 높이고 백성을 지키는 것을 정치로 삼는다면, 비록 아침은 자동차를 저녁은 기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성인의 길을 따르는 것과 모순되지 않을 것이다.”(『권학편』, 『회통(會通)』)

13) 이상은 이택후의 앞의 책에서 번역을 요약 수정하여 재인용했다.

10) 이택후, 같은 책, 266쪽.

11) 羅志田, 『二十世紀的 中國思想與學術 掠影』(廣東教育出版社, 2001), 161쪽.

1923년 2월 장군매(張君勱, 1887-1968)는 「인생관」이란 제목의 강연에서,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든 인생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내용이 『청화주간(淸華週刊)』에 발표되자, 과학과 정문강(丁文江, 1887-1936)은 그 해 4월 『노력주보(努力週報)』에 「현학과 과학」라는 글을 써서, 장군매의 몸에 “현학의 귀신이 씌었다”고 하며 즉각적인 반격에 나섰다. 이리하여 새 시대 새로운 철학의 탄생¹²⁾을 예고하는 학술 논쟁의 불이 붙었다.

이후 곧 양계초(梁啓超, 1873-1929), 호적(胡適, 1891-1962), 임숙영(任叔永), 손복원(孫伏園), 장연존(章演存), 주경농(朱經農), 임재평(林宰平), 당월(唐鉞), 장동손(張東孫), 국농(菊農), 육지위(陸志韋), 왕성공(王星拱), 송고(頌臯), 왕평릉(王平陵), 오치휘(吳稚暉), 범수강(范壽康) 등이 차례로 글을 발표하여 논쟁에 가세하였다. 같은 해 11월, 상해 아동도서관(亞東圖書館)에서 총 29편의 논쟁문을, 신문화운동의 두 영도자인 진독수(陳獨秀, 1879-1942)와 호적의 서문과 함께, 『과학과 인생관』이라는 책으로 발간했다. 그리하여 1년 가까운 시간에 25만 자에 달하는 찬란한 문장을 남긴 “과현논쟁”은 대체로 마무리되었다.

2. 과학주의와 과학파산론

2.1. 과학주의의 성립

서양에 유학하여 근대 과학의 훈습을 받은 지식 계층이 속속 귀국하여 활동하자 사정은 일변했다. 그들은 과학적 인식에 기초하여 종래의 안이한 ‘중체서용’적 주장을 재검토했다. 더욱이 청일전쟁(1894)에서 패배하자 사람들은 민족적 위기감 속에서 이제 단순한 기술 개혁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함을 절감했다. 또 신해혁명(1911)으로 민국을 수립했지만 얼마 안 가서 원세개에 의해 왕정이 복원되자, 표면적 제도 변혁만으로는 진정한 민주공화제를 세울 수

12) 풍우란은 1930년에 쓴 『중국철학사』 말미에서 “중국철학사의 새 시대는 아직 창조 도중에 있다”고 규정한 바 있다. 그 역시 1938-46년간에 이른바 “정원육서”를 발표하여 그 스스로 규정한 “새 시대의 사상가”(“現代新儒家”)의 한 사람이 되었다.

없고 근본적으로 정신적 차원에서 세계관·인생관을 바꾸어야 한다고 느꼈다. 서구식 공장을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런 것을 가능케 한 서양의 제도와 문화에 대해서도 연구 수용하여 중국도 그와 같이 변하고, 사람들 사고방식도 변해야 한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해박한 지식으로 서양의 많은 학술서적을 번역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 엄복(嚴復, 1853-1921)은 서양의 과학 사상의 방법에서 사물 “인식의 이지적 태도”가 핵심이라는 점을 지적했다.¹³⁾ 그는 국민의 과학 정신을 배양하여 낡은 학문을 제거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이런 배경 하에 폭발한 것이 5·4 신문화운동이다.¹⁴⁾ 이 운동의 계몽사상가들은¹⁵⁾ 전에 없던 정신과 태도로 과학지식·과학정신을 선전하고 과학계몽을 진행시켜 ‘과학’을 ‘민주(민주주의)’와 함께 옛 가치·신앙체계를 대체할 선명한 기치로 만들었다. 서양의 철학 유포들 중 특히 ‘과학적’이라는 명분을 표방

- 13) 그는 “수학과 논리학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모순된 이치를 가려내거나 필연의 법칙을 고찰할 수 없으며, 역학과 화학을 배우지 않으면 인과 법칙의 의미와 그 역할을 살필 수 없다”고 지적했다.(『원강(原強)』, 『엄복집』, 중화서국, 1986) 다만 나지전에 따르면 “엄복은 양계초·양수명처럼 중서문화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하지 않았지만 서양문화에 대한 견해는 두 양씨와 서로 비슷했다.” (나지전, 178쪽)
- 14) 이 운동은 다른 민족에서는 나타난 적이 없었던 반전통 운동으로서, 동서문화에 통달하고 아울러 전통문화에 대한 상당한 교양을 갖춘 지식인들에 의해 제창되고 추진되었다. 이들은 스스로 권력자에게 조언하는 사대부의 의미를 이어받고 있다고 여기며 근대적 교육을 받은 자기들만이 중국을 ‘구할’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 15) “공자의 상점(폐습의 온상)을 타도하자(打倒孔家店)”는 구호 하에 진독수는 충·효·정절 등 유교적 낡은 도덕에 대한 전면 부정을 외쳤다. 그는 유교가 철폐되어야 평등·인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여기고, “유교와 새로운 신념,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국가는 서로 양립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적 사명감에 충만한 베이징 대학에서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발간하며 “청년은 초봄과 같고 떠오르는 태양과 같고 묘상에 있는 초목과 같으며 새로 간 칼날과 같다”고 하여, 노인에 대한 절대 공경을 내세운 유교 전통에 도전했다.(『옥스퍼드 중국사』, 292쪽) 또 호적은 “진지하게 서양을 배워야 하며 모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전반서화론(全盤西化論)을 주장했으며, 노신(魯迅, 1881-1936)은 유교를 사람 잡아먹는 가르침으로 규정하고 중국 책은 읽지 말거나 되도록 적게 읽으라고 가르쳤다. 요컨대 이들은 낡은 전통은 철저히 타도되어야 하고 중국학문은 근본적으로 폐기되어야만 중국이 구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이택후, 268쪽 참조)

한 실증주의철학이 당시 귀국 유학생들 중심으로 다투어 소개되었다. 그들은 “증거를 가져 오라”는 슬로건으로 전통 학문 방법을 집중 비판했다. 이제 과학은 일종의 보편적 가치 규범으로서 사회생활 각 영역으로 침투해 갔다. 과학정신, 과학방법, 과학적 도덕과 문화, 과학적 인생관·세계관을 선도하면서, 시대적 신사조와 신평조가 되어버린 “과학”은 ‘지고무상(至高無上)’의 지위를 획득했고 심지어 숭배의 경향까지 출현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른바 ‘과학주의’이다.¹⁶⁾ 이 풍조를 호적은 『『과학과 인생관』 서문』에서 이렇게 개괄하였다.

근 30년 국내에서 최고 존엄한 지위에 도달한 명사가 있으니, 그 의미를 알든 모르든, 수구파나 진보파를 막론하고, 아무도 공개적으로 경시하거나 희롱하는 태도를 표시할 수 없었던 그 명사가 바로 ‘과학’이었다. 그것이 온 나라 안에서 그와 같은 일치된 숭배와 신앙의 대상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적어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중국에서 ‘변법’과 ‘유신’을 강론한 이래 신인물이라고 자부한 사람치고 감히 ‘과학’을 훼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이다.¹⁷⁾

나중에 호적은 「서양 근대 문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는 하느님이 만능임을 쉽게 믿지 못하여도, 과학적 방법이 만능임을 의심치 않는다. … 서양 근대문명의 정신 방면의 첫째 특색이 과학이다. 과학의 근본정신은 진리를 찾는 데 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환경에 꺾박당하고 관습에 지배당하고 미신·편견에 구속당하거나,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고 강한 힘을 갖게 하고 명철한 지혜를 주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둘러싼 일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하늘을 정복하고 땅의 거리를 단축케 하고, 하늘도 땅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한 사람이 되게 한다.”¹⁸⁾

이와 같이 당시 지식인들에게 ‘과학’ 개념은¹⁹⁾ ‘민주’ 개념과 함께 서양의

16) 이상은 유장림, 384-5쪽 참조.

17) 장군매, 정문강 등 저, 『과학과 인생관』(山東人民出版社, 濟南, 1997), 10쪽. 이하에서 쪽 수만 밝힌 경우는 모두 이 책을 지칭한다.

18) 『胡適學術文集-哲學與文化』, 中華書局, 2001, 196쪽, 193쪽.

19) 5·4 시대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과학의 정신과 방법이었는데 이 때의 정신과 방법은 실제로 주로 생물학의 진화론(당시 용어로는 天演論)에서 온 것이었다. 이들은 또한 실험주의와 변증법적 유물사관이 과학의 두 줄기라고 여겼다. … 다만 호적

발전과 변혁을 가능케 한 두 축이자, 인생관 뿐 아니라 일체의 현실에 대한 변혁을 추동케 하는 두 가치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2.2. 과학 파산론의 대두

그러나 낡은 전통의 타도를 외친 5·4 신문화운동 이면에는 처음부터 강력한 대립적 측면이 포진하고 있었다. 즉 ‘동도서기’ ‘중체서용’의 전통을 계승한 양계초,²⁰⁾ 양수명(梁漱溟, 1893-1990) 등이 이른바 서구 과학문명의 한계를 부각시키면서 중국의 ‘정신문명’ 내지 ‘동방문명’의 우월성을 제시했던 것이다.²¹⁾

이들에게, 서양문명의 위기를 경고하는 서양 사상가들의 반성적 분석은 서양 과학의 한계를 부각시킬 좋은 빌미가 되었다. 예컨대 “일체의 가치체계의 전도”를 의미한 “신은 죽었다”는 니체의 외침은 오히려 이들 국수주의적 중국인들에게는 중국의 전통 문명을 재평가할 유력한 구호로 변했다. 또 서양의 당대 석학인 러셀이 북경으로 날아와 서양과 구별되는 중국의 이른바 ‘정신문명’을 매우 높이 평가하자 그들은 가일층 고무되었다.

이 무렵 양계초는 정문강, 장군매 등을 인솔하고 1918년 세모에 서구 시찰을 떠났다. 그는 곳곳에서 1차 세계 대전(1914-18)의 참상을 목도했다. 가공할 파괴와 인간의 고통은 그에게 큰 충격을 일으켰다. 서양문명이 회의되자 중국문화의 가치에 대한 신심이 강화되었다. 귀국 후 발표한 「구유심영록(歐游心影錄: 서구시찰 인상기)」에서 그는 서구문명의 핵심은 과학정신인데 ‘서구의 몰락’ 내지 위기 상황은 이미 ‘과학의 파산’을 증명한 셈이라며 이렇게 진단했다.²²⁾

은 나중에 “변증법은 헤겔의 철학에서 나온 것으로서 생물 진화론 성립 이전의 현학 방법이다. 실험주의는 생물학 진화론이 출현한 이후의 과학 방법이다. 이 두 종류의 방법은 서로 반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지전, 176쪽 참조)

20) 양계초는 무술변법 시기에 ‘서양 학문을 채취할 것’을 힘써 주장하면서 신사상(新思想)을 고취한 것으로 유명해졌다.

21) 이택후, 268쪽 참조. “신문화운동이 절정에 이를 때, 그 운동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도 반응을 보였다. 그것은 신문화운동의 역류로서, …장군매의 「인생관」과 양계초의 「구유심영록」이 그 역류의 두 표현이었다.” (풍우란, 『중국철학사 신편』7책)

22) 이상의 논의는 유장림, 390-1쪽 참조.

근대인은 과학의 발달로 공업혁명이 일어나 외부생활은 급격히 변했고 내부생활도 동요했다. … 과학자들의 심리학에 따르면 사람의 ‘심령’도 물질운동 현상의 하나일 뿐이다. … 이 유물주의 철학자들은 과학의 치마 밑에 의지하여 순물질적 순기계적 인생관을 세워, 일체의 내부 외부 생활을 모두 물질 운동의 ‘필연법칙’에 귀결시켰다. …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심리와 정신을 똑같은 물질로 간주하여 실험심리학에 근거하여 인간의 정신도 일종의 물질에 불과하니, 똑같이 ‘필연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억지를 펼쳤다. 이리하여 인간의 자유의지는 부득불 부인되기에 이르렀다. 이미 의지가 자유로울 수 없을진대 무슨 선악의 책임이 존재하겠는가? …

현대 사상계의 최대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다. 종교와 옛 철학은 이미 과학에 의해 그 기운을 완전히 상실했다. … 새로운 권위는 아직 수립되지 못하고 이전의 권위는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전사회의 인심은 회의와 번민과 두려움에 빠져 마치 바다 한 가운데서 나침반을 잃어버린 배가 바람과 안개를 만나 어떻게 앞길을 헤쳐가야 좋을지 모르는 상태처럼 되었다. 이리하여 물질만능주의와 강권주의가 점점 세력을 얻었다. 사후에도 천당은 없으니 앞으로 남은 이 몇 십 년 동안 마음껏 즐기며 사는 수밖에 없다. 선이든 악이든 이미 책임은 존재하지 않으니 내가 모든 수단을 다해 내 개인의 욕망을 충족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향수할 물질의 증가율은 욕망의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건만 균형을 이룰 방법도 없다. 어찌면 좋을 것인가? 그저 자기의 능력대로 자유경쟁, 솔직히 말해 약육강식할 따름이다. 요즘의 중국의 무슨 무슨 군벌 등도 모두 이런 노선에서 생긴 것이고, 서구의 세계대전도 (과학주의의) 옹보의 하나일 뿐이다. … 서구인들은 과학만능이라는 커다란 꿈을 꾸었지만 지금에 이르러 과학의 파산을 초래했을 뿐이다.²³⁾

이 글의 핵심은 서양 철학상의 자유의지와 결정론에 관한 문제이다. 서양 근대철학에서 대체로 심리상의 인과적 필연성이 주장되고(결정론) 자유의지가 부정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문적 엄밀성 속에서 자유의지를 부정한 사실이 곧 사회적 법률적 책임성이 강조되는 일상 생활 속에서의 ‘자유의지’라는 낱말의 기능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²⁴⁾ 따라서 양

23) 호적의 『『과학과 인생관』 서문』(『과학과 인생관』, 10-11쪽)에서 재인용.

24) 서양 근세철학에서 제시된 “자유의지의 부정”은 중세철학의 배경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자유의지의 부정은 중세의 미몽에서 벗어나 새 세계를 개척하는 계몽의 세기에 제출된 것으로서 휴머니즘에 연결된다. 즉 자유의지가 절대적으로 강조되면 예컨대 어떤 범죄행위의 처벌에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좁아지지만 결정론은 “정상참작” 이론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다. 대부분의 철학적 명제

계초가 서양철학사적인 이해 없이 ‘자유지의 부정’이라는 표현 자체에만 근거하여 <자유의지가 부정된다면 인간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결국 인간 세상은 약육강식의 야만세계로 전락할 것이다>고 추론한 것은 침소봉대(針小棒大) 내지 망문생의(望文生意)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계초가 자유의지를 강조한 맥락은 (맹목적 과학주의는 큰 위험을 내포하니) 주위 환경에 대한 인간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서양 철학사상에서의 ‘자유지의’ 문제가 논의된 맥락과는 처음부터 무관했다. 즉 그는 “본성을 다 발휘하라(盡性)”는 주장을 제창하여, 사람들이 저마다 타고난 양능(良能)을 완전히 발휘하여 스스로 독립하고 타고난 장점을 사용하여 능동적으로 창조 진화하여 국가를 강성케 하고 사회를 진보케 해야 한다고 여겼다.²⁵⁾ 그는 서양인의 고통과 과학의 파산을 서술하면서 중국청년들을 향해 중국고유문화를 가지고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 서양인들을 건져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같은 양계초의 이해에 동조한 인물이 양수명(梁漱溟)이었다. 양계초는 과학이 인간의 지식 수준을 향상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정감과 의지의 측면에서 과학은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양수명은 바로 이 점에서 과학은 인생 문제를 해결하지도 만족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현학에 속하는 직각과 정감에 주목하고 존중해야 동서양에서 망연자실한 인생에 안신입명(安身立命)의 경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와 ‘과학’ ‘비판 정신’을 “무조건 찬성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 이유로서 “그러한 인생 태도가 현재 서양에서 이미 많은 병폐와 고통을 낳았고 준엄한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고 하면서,²⁶⁾ 이렇게 말했다.

는 그 역사적 맥락을 벗어나면 진정한 함의를 상실하기 쉬운데, 양계초가 이해한 서양 근세 철학의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도 그 하나였다.

25) 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환경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양계초는 그와 같은 객관적 물질 조건은 거의 문제삼지 않은 반면 오직 의지의 중요성만 지나치게 강조했는데, 이러한 입장은 과학논쟁에서의 현학파의 입장과 동일한 맥락에 있다. (유장림, 같은 책, 394쪽 참조).

26) 『동서양의 문화와 그 철학』, 『양수명전집』 제1권, 531쪽.

서양인은 얼마나 불쌍한가! 그들은 물질적 피폐에 직면하여 정신의 회복을 시도 하나, 그들이 말하는 정신이란 히브리 몇몇 가지에 불과한지라 좌충우돌할 뿐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이른바 “대도(大道)를 들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니, 우리가 옹당 그들을 공자라는 이 한 길로 인도해 내야 하지 않겠는가?

양수명은, 인류 문명의 진보의 척도는 정치 경제 방면의 진보에 있지 않고 인류의 정신이 위로받고 안녕을 얻었는지 여부에 있다고 여겼다. 이 때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의 정감 문제이다. 중국의 인생철학 특히 공자의 인생철학의 정신은 실제로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는 일종의 생명철학이기 때문에 그것이 서양인을 구제할 수 있는 영약 묘방이라고 굳게 믿었다. 이리하여 양수명은 ‘유학 정신’의 부흥을 주장했다.²⁷⁾

양수명은 이지(理智)를 객관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직각(直覺)을 사람의 생명의 도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여겼다. 이지는 객관적 사실의 참됨을 강조하므로 그 기초 위에서 과학적 분석 판단이 진행되며, 직각은 일종의 직관적 돈오(頓悟)를 강조한다고 하였다. 이지는 일종의 과학적 인식방법으로서 자연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비극적이게도 서양 사람들은 이러한 물질에 대한 인식 태도를 사람에 대한 인식 위에 운용함으로써²⁸⁾

27) 유장림, 413-7쪽. 양수명은 ‘과학’·‘민주’를 적극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이미 서양에서 그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니, 그 두 정신을 받아들일 때 그것들이 조성한 폐단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아울러 중국이 구비하고 있는 활력적 인생 사상을 충분히 인식하고 선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수명이 ‘중체서용’적 사유방식의 기초 위에 형성된, 과학과 민주에 대한 인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그는 과학의 발생과 인생에 대한 과학의 영향 및 중국 인생철학이 서양의 과학적 인생관과 비교할 때 어떤 우월성을 가지는지를 고찰했다.

28) 이 결과 서양 사회의 인간관계는 참된 정감의 상실, 사람의 정신과 ‘참된 자아’의 상실을 초래했다. 양수명의 용어로 말하면, 인생 본래의 정취가 말끔히 참살되어 버렸다. 왜 그랬는가? 저 이지 분석적 두뇌는 우주의 모든 것을 저 범주 내로 납입시켜 모든 것을 물질로 변화시켰고, 자연은 단지 한 무더기 파편화된 사물(死物)에 불과했고, 사람들 자신들도 자연내에 오직 파편으로 합성된 것으로 귀착되었고 이제 다시 우주와 혼연일체로 융합되는 심오 신비한 정신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서양인의 고통을 구제할 수 있는가? 양수명에 따르면 서양인의 유일한 구원의 신은 생명파의 철학이다. 이러한 철학은 파편화된 우주들

‘감정의 유리’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과학에 속하는 이지가 인생 문제에 응용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²⁹⁾

『구유심영록』은 양계초 본인의 중국전통문화로의 회귀를 상징했고, 양수명의 『동서문화와 그 철학』은 양계초의 과학 파산론을 계승했다. 이 두 저작은 현대 문화보수주의의 상징적 대표작이 되었고, 이후 현학파의 이론적 기초로 작용했다. (유장림, 394쪽)

요컨대, 중국 근대시기에 형성된, 과학에 대한 두 가지 상이한 관점은 이후 발생한 “과학논쟁”³⁰⁾ 즉 과학과 인생관 논쟁의 선구가 되었다.

3. 과학 논쟁

3.1. 현학파 장군매의 [인생관]

‘과학파산론’의 영향을 받은 장군매는 「인생관」에서, “천하 만사는 모두 보

하나로 융합시키는 기백을 구비하고 있고 정취에 활기를 회복시켜 물질적 우주를 정신적 우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이지가 성행하여 모든 것을 계량화시켜 계산하고 모든 것이 물질적인 것으로 되어버리는 한 서양인의 정신과 인생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으니, 생명과 철학의 직각은 이러한 계량화 계산을 초탈하여 인생에 일종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수명은 매히 자신 있게 말했다. “현재의 세계는 직각이 이지를 대체하고 흥성할 것이다.” (유장림, 408쪽)

29) 양수명은 베르그송 등 현대 서양 인본주의자들의 사상을 차용하여 비이지적(비이성적) 정감·의지·직각의 생명체험이 있어야 인간의 본질에 부합할 수 있게 되고, 반면에 과학과 이지는 그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에 불과한 것인지를 인생의 생명 체험에는 아무런 실질적 의미도 없고 단지 객관 세계를 개조하고 인류의 물질 이익 측면에서만 그 가치가 있을 뿐 사람의 주체적 내면 세계, 즉 수심(修心) 양성(養性), 내면의 생기와 활력을 배양하는 데는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원래 베르그송의 생명철학은 근대 “과학·이성” 주의 사조에 대한 대립으로서 인문주의의 가치를 고양하고 인간 본성에 대한 기계주의 공업문명의 억압을 반대하고 생명의 의미와 가치가 창조적 진화에 있음을 강조하고 이로써 서양자본주의 공업 문명이 노출시킨 병폐를 치료하려고 시도했다.(유장림, 404쪽)

30) 양수명은 현학과 과학을 중국과 서양의 문화 구별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나지전, 172쪽) 즉 과학논쟁은 동·서 문화 논쟁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편 법칙이 있다고 배웠을 것이지만, 사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한 번 생각해 보면 대다수의 문제는 기껏 것처럼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갑은 이렇게 말하고 을은 저렇게 말하여 정말로 시비 진위의 표준이 없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니” “천하 고금을 통해 가장 통일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관이다.” “이런 문제는 동서고금에 의견이 불일치한지라 결코 수학이나 물리 화학 문제처럼 일정한 공식이 있는 것과 같지 않다.”(33쪽) 그는 과학과 비교하여 인생관의 특징을 다음 다섯 가지로 개괄했다.

첫째, 과학은 객관적이고 인생관은 주관적이다. ... 즉 (과학상의 진리는) 일종의 일반 법칙(公例)으로서 시공을 초월한다. ... 그러나 인생관은 이와 반대이다. 공자는 도덕 실천에 힘썼으나 노자는 무위를 주장했고, 맹자는 성은 선하다 했으나 순자는 성은 악하다 했다. ... 또 칸트는 의무주의를, 벤담은 공리주의를 내세웠다. 이처럼 견해가 서로 다르다. ... 이들 여러 학자들의 주장은 시비를 각자 고집하므로 절대로 일종의 실험을 하여 갑은 옳고 을은 그르다고 보여줄 수 없다. 왜 그런가? 그것이 바로 인생관이고,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과학은 논리적 방법의 지배를 받지만 인생관은 직각에 근거한다. ... 공자는 수신제가주의를, 석가는 출세간주의를, ... 묵자·예수는 무차별 사랑을 주장했다. 이런 것들은 애초에 논리학의 법칙에 의해 제한될 수도 정의할 수도 없고, 모두 자기 양심의 소명에 따라 천하 후세의 모범으로 주장한 것이므로 직각적인 것이다.

셋째, 과학은 분석적 방법으로 시작하지만 인생관은 종합적인 것이다. ... 인생관은 종합적이고 일체를 포괄하는 것이므로 역지로 분석하면 그 참된 의미를 상실한다. ... 예컨대 쇼펜하우어의 인생관은 남자를 높이고 여자를 천시하여 일부다처제를 주장했는데, 혹자는 그 동기를 쇼펜하우어가 실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분석도 일정한 이유가 없지 않겠으나, 이유는 이유요 인생관은 인생관이다. 인생관의 시비는 그 안에 포함된 동기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

넷째, 과학은 인과율의 지배를 받지만 인생관은 자유의지에 따른다. ... 공자는 왜 이처럼 경황없이 천하를 철환했고 예수는 왜 십자가에서 죽었으며 석가는 왜 고행을 했는가? 이런 것들은 모두 양심의 자율에서 나온 것이지 결코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이 누우치고 개과천선하는 책임은 마음에 있지 인과율로써 해석될 수 없는데, 그 주체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과학은 대상의 동일성에 근거하지만 인생관은 인격의 개성(단일성)에 근거한다. ... 예컨대 식물도 유형이 있고 동물도 유형이 있다. 유형이 있는 이상 그 변화 현상은 전후 일관되기 때문에 과학은 보편 법칙을 추구할 수 있다. ... 그러나

에컨대 괴테의 『파우스트』, 단테의 『신곡』, 셰익스피어의 희곡, 바그너의 음악 등은 정신분석이나 아이큐 테스트를 하더라도 그 유래를 해석할 수 없다. 인생관은 특수하고, 개성적이고 유일무이한 것이기 때문이다. 갑에 있는 것을 을에서 구할 수 없고 을에 있는 것을 병에서 구할 수 없다. … (35-38쪽)

즉 “인생관의 특징은 주관적, 직각적, 종합적, 자유의지적, 개성에 있다.” 따라서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든 인생관 문제의 해결은 결코 과학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인간 자신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과학과 인생관은 상이한 두 세계에 속하고, 과학은 단지 객관적 물질 세계 속에서만 기능할 수 있고 인간의 정신 영역 속에서는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이다.³¹⁾

장군매에 따르면, 아담스미스, 마르크스, 쇼펜하우어, 플라톤 등의 사상가는 각기 다른 주장을 했고 거기에는 절대적 시비가 없으나, “기나긴 역사의 어둠 속에서 불을 밝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한 사람은 이들 몇 명일뿐이었다.”(38쪽) 즉 “자기의 양심의 소명에 따라 자유의지로 인류의 등불이 된 인류의 스승이었다.” 그는 끝으로 인생관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사조의 변천은 바로 인생관의 변천이다. … 이제 바야흐로 중국은 신문화를 다투어 이야기하고 있으나 문화 변화의 축은 인생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가 있고 서양은 서양의 문화가 있다. 어떻게 서양의 유익한 점을 채택하고 어떻게 유해한 점을 제거할 것인가 하는 취사선택의 시기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관점에 의해 결정된다. 관점이 정해진 이후 정신상의 사상 사조, 물질상의 제도 등이 계획에 따라 모색된다. 이와 같이 문화에 대한 인생관의 관계는 막대하다.(40쪽)

3.2. [인생관]에 대한 정문강의 비판

과학과 정문강은 장군매의 주장은 마치 귀신에 홀린 상태에서 나온 황당무계한 발언이라고 여겼다.

31) 신문화운동 연구가인 오계원(伍啓元)은 장군매의 “직각주의는 일종의 현학 사상에 불과하고” 그가 대표하는 것은 벌써 이미 몰락한 봉건 잔재인 만큼 이미 사회적 기초가 없는지라 일종의 ‘회광반조(回光返照)’에 불과하니, “사실상 과학주의자(실험주의자) 전체를 동원할 필요도 없이 그것 스스로 공격하지 않아도 저절로 넘어질 것이었다”고 주장했다.(『中國新文化運動概觀』, 現代書局, 177쪽)

현학은 참으로 무뢰한 귀신(無賴鬼)이다. 서구에서 2000 여년간 빈둥거리다 근래에 이르러 점점 밥 먹고살 길이 없어지자 홀연히 거짓 간판(허울)을 쓰고 새로운 명패를 걸고 어깨를 으쓱이며 중국으로 달려와 허장성세로 이목을 끌며 사기를 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은 믿어서는 안 된다. …

현학의 귀신은 매우 지독하다. 일단 사람의 몸에 붙어버리면 다시 떨쳐내기가 쉽지 않다. … 설사 우리가 그 모순과 거짓을 증명해 내도 현학파는 여전히 현학은 논리학이나 사실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대답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41쪽)

그러면서 정문강은, 과학이 1900년의 연합군의 총포 같은 것이라면, 현학파의 주장은 그 총포에 죽어가면서도 자기들은 그런 무기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여겼던 의화단의 주장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42쪽)

정문강은 “인생관은 시비진위의 기준이 없다”는 장군매의 주장을 비판하여 “시비진위를 따지지 않으면 대체 어디서 기준을 구한단 말인가? 시비진위를 구하려 하면 과학적 방법 말고 다시 또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현학파는 미리 하나의 선입견을 견지하여 과학적 방법은 인생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장군매가 “인생관은 논리학 방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한 것에 대해 정문강은 “논리학으로 연구 비평할 수 없는 것은 참된 지식이 아니다”고 비평했다. 또 장군매가 “인생관 문제의 해결은 결코 과학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선언 한 것에 대해, 정문강은 “심리적 내용도 참된 개념 추론이 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은 다 과학의 재료가 된다”고 반박했다.³²⁾

또한 정문강은, 장군매가 “시비 진위의 기준”을 떠나, “양심의 자율”만 강조하고, “자유지지”와 “양심의 소명에 따라 의연히 일어나 인류의 길을 밝힌 사람이 곧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다”고 주장한 것에 관하여, 이렇게 비평했다.

32) 또 장군매가, 베르그송의 철학을 찬양한 것에 대해, 정문강은, 베르그송 철학은 호적이 이미 ‘맹목적 충동’이라고 평한 바 있고, 러셀이 북경에 왔을 때 어떤 사람이 베르그송의 중국 강연을 성사시켜 달라고 청탁하자 러셀이 ‘왜 당신들은 베르그송의 방문을 요청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베르그송은 파리의 패션 부인들 덕에 명성을 얻었을 뿐이다. 그는 철학에 대해 공헌한 것이 거의 없고, 동료 철학자들도 다 그를 무시한다’라고 대답했던 사실을 들어, 베르그송 철학의 가치를 폄하했다.

과연 그와 같다면 책도 읽을 필요가 없고 학문도 추구할 필요가 없고 인식과 경험 모두가 쓸모 없고 단지 '자기의 양심이 명하는 바에 따라 일어나 주장하기만' 하면 만사 그만이니, 인생관이란 '모두 양심의 자율에서 비롯되고 결코 그렇지 시키는 존재는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책을 읽고 학문을 추구하고 인식과 경력을 쌓는 것은 전부 시간 낭비인 셈이다. 하물며 일체의 문제 모두가 토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임에 있어서라! 토론은 항상 논리 법칙을 사용해야 하고, 정의(定義)의 방법을 써야 하는데, 이것들은 장군매의 인생관에서 승인되지 않는 것들이다.

따라서 가령 '장헌충(역사적 살인마)' 같은 요괴가 홀연히 모습을 나타내, 그 살인주의를 내세워, "스스로의 양심이 명한 바에 따라 일어나 '살인주의'를 천하 후세의 모범으로 삼으라고 주장하더라도", 우리는 다만 그 사람 역시 쇼펜하우어나 마르크스와 똑같은 대인물임을 인정하고, 또 "기나긴 어둠의 역사 속에서 불을 밝히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한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니, 이것이 대체 무슨 말인가? 황차 사람은 저마다 각자의 양심이 있거늘 하필 또 '불을 밝혀줄' '모범'이 필요한단 말인가? 사람들이 각자 제멋대로의 인생관을 들고 나와 '일어나 주장할' 경우, 그것이 어찌 공자·석가·묵자·예수의 인생관보다 고명치 못하다 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물며 시비 진위의 기준이 아예 없는 것(인생관)에 있어서라? 한 개인의 인생관은 응당 모순될 수도 있으니 남녀평등을 주장하면서도 일부일처제를 수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을 오직 '양심의 자율'로 규정해 버리면, 하필 논리·비논리를 따질 필요가 있겠는가? ... 이런 사회라면 하루라도 살 수 있겠는가? (52쪽)

즉 객관적 인식에 의한 시비진위의 기준을 따지지 않고 주관적인 내면의 양심이 명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경우, 역사상 장헌충이 저지른 살육 행위도 우리는 "인류의 어둠을 밝힌 등불"로 인정해야 하는 모순에 빠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문장은, 과학에 대한 장군매의 불신을 질타하듯, 이렇게 말했다.

과학의 재료는 인류의 모든 심리적 내용이 포함되며, 모든 참된 개념 추론은 과학이 연구할 수 있고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 과학적 목적은 (인생관의 최대 장애인) 개인의 주관적 선입견을 물리치고, 사람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진리를 찾으려는 것이다. 과학적 방법은 사실의 진위를 변별하고 참된 사실을 추출하여 상세히 분류한 다음 그들 사이의 질서를 찾아 간단명료한 언어로 개괄하는 것이다.

과학은 또한 교육과 수양의 가장 좋은 도구이다. 왜냐하면 과학은 날마다 진리를 구하고 수시로 선입견을 없애게 하여, 과학을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구하는 능력이 생기게 해 주고, 진리를 사랑하는 참된 마음을 가지게 해 주기 때문이다. 무슨 일을 만나든 항상 냉정하게 분석 연구하여 복잡한 것들 속에서 간단함을 구하

고, 문란한 것들 가운데 질서를 구하여, 논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을 훈련하고 상상력을 더욱 늘리고, 경험을 가지고 그의 직각을 이끌게 하여 직각 능력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해주는 것이다. (53-4쪽)

정문강에 따르면 “과학의 만능, 과학의 보편성, 과학의 명확성은 그 재료에 있지 않고 그 방법에 있다.”(53쪽)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제임스의 심리학, 양계초의 역사연구법, 호적의 『홍루몽』 강의”(53쪽) 및 “근 300년 경학 대사의 학문연구 방법³³⁾”(57쪽) 등이 모두 과학이다.

또 정문강은 “우주·생물·심리 등의 여러 관계를 깨달아야 합당하게 생활의 즐거움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이지적 성찰에 기반하지 않은 이른바 “안신입명의 경지”의 추구를 비판했다. “생기 넘치는’ 마음의 경지는 오직 망원경으로 무한한 우주를 살피고, 현미경으로 생물의 신비를 고찰하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투철히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목석처럼 앉아 선(善)을 논하고 공허한 이치(玄理)를 주장하는 사람은 감히 꿈꿀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54쪽)

장군매는 “공맹이래 송원명의 리학자까지 내면 생활의 수양에 치중한 그 결과가 정신문명이고, 근 300년 동안 서구에서 인력으로 자연계를 지배하는 것에 치중한 결과가 물질문명이다”(38쪽)라고 하여, 동서 문명을 정신문명과 물질 문명으로 대립시켰다. 이에 대해 정문강은 이른바 그 “정신문명”이 역사상 초래한 결과를 돌아볼 것을 요청했다. 정문강은 “(송대 인물들은) 빈객 문인의 학자를 수백 명씩 불러모아 심·성을 논하면서, 박학다식에 기반한 일이관통의 방법을 버리고, 사해의 곤궁에는 눈을 돌리고 종일 공허한 심성 이론만 강론하였다”고 한 고염무의 말을 인용하며, “사대부는 과거에도 무지했고 현재에도 무지하며, 교만과 나약함만 키웠으니 하나도 쓸모가 없다”고³⁴⁾

33) 호적은 정문강과 그 자신이 “가장 애독한 것은 혁슬리의 과학방법론 논문이었다”고 회고했다. 혁슬리는 역사학, 고고학, 지질학, 고생물학, 천문학 모두를 ‘역사적 과학’으로 분류했는데 그 응용 방법은 중국의 ‘고거(考據)’와 비슷했다. … 호적과 정문강은 모두 ‘고거’ 방법이 곧 과학적 방법이라고 여겼다. (나지전, 184-5쪽)

34) “그 결과 100년 동안 야만인 몽고에 의한 지배를 당하여 강남 사람 수백만명이 살육당했고 한족의 문화는 거의 멸절되었다. 명대에 육상산의 뒤를 이은 후계자가 바로 왕양명 진현장이었다. 명말에 이르러 이들 육왕 학파는 천하를 풍미했다. 그

규정하고, “이런 정신문명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도대체 과학을 공격할 명분이 어디 있단 말인가?”(58쪽)라고 논박했다.³⁵⁾

정문강은, 장군매가 서양 사상의 전반을 보지 않고 하나의 유파에 불과한 베르그송 철학의 “현학 해독에 감염되어” 과학을 공부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직 송명리학의 잔재 속에서 다시 불씨를 일으키고 있는 까닭은 그런 것들이 나태한 이들의 심리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현학파의 논조는 “의식이 족해야 예절을 알고 창고가 실패야 영욕을 안다”(58쪽)는 지극히 명확하고 평범한 이치조차 거부하는 것이라고 정문강은 단정했다.

3.3. 장군매의 반론

장군매는 정문강의 비판에 반론을 제기하여 애초의 자기 주장을 더욱 강화했다. 그에 따르면 “확실·불확실의 기준에서 볼 때 엄밀과학과 정신과학은 이미 차이가 있는데” “정문강은 심리 내용(정신과학)과 과학 자체(엄밀과학)를 하나로 혼동했기 때문에 그 둘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괴상한 주장을 했다.”(65쪽) 장군매는 정신 영역은 과학의 영역을 벗어난다며 이렇게 말했다.

베르그송은 『시간과 자유의지』에서 인생의 본질은 자각성에 있다고 밝혔다. 이 자각성은 시시각각 변하고 지나가고 머무르지 않으므로 몇 초 전의 나는 지금 현재의 내가 아니다. 심리 상태는 변천하므로 절대적으로 측량할 수 없고 인과를 따질 수 없다. 측량함으로써 인과를 따질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그 상태가 고정된 것이어

들은 남송 사람보다도 더욱 퇴보하여, 독서는 완물상지(玩物喪志)로 치부되었고 정치의 일은 고상한 풍채의 방애물로 여겨졌다”고 정문강은 말한다.(58쪽)

35) 오치휘의 관찰에 따르면 무술변법 이전 유가의 주류문화가 아직 붕괴되지 않았을 때 ‘공자가 입에 담지 않은’ 괴력난신(怪力亂神)은 중국에서 결코 대대적으로 성하지 않았다. 서양 조류의 충격으로 중국의 주류 문화가 이선으로 후퇴하자 먼저 의화단(배외운동 주도한 백련교 계통의 비밀결사)의 출현이 있었고 그후 20년대에는 각종 ‘괴력난신’이 창궐하게 되었다. 또 정문강이, 장군매의 현학을 “서양의 현학 귀신”과 송명리학을 연합한 것이라고 성토했던 것이 특별히 “현이우현(玄而又玄)”하다고 지적한 사실은, 바로 독자에게 장군매의 관점을 당시 창궐하는 도교 부류의 인생관과 연관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다. (나지전, 171쪽)

야 한다. 이전 상태가 '인'이 되고 그 후 상태가 '과'가 되어 인과가 보여진다. 그런데 시시각각 변하는 '심리'는 어떤 특정 상태가 없으므로 임의로 어떤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확정하는 것은 이미 시간이 흐른 뒤이므로 이미 과거가 된다. 오직 그러므로 심리는 자유로 변하고 인생의 자유 또한 그 안에 존재한다. ... 따라서 순수 심리는 법칙을 구할 수 없다는 학설은 베르그송 한 개인의 말이 아니다. ...

과학의 경우는 세계 통일적이니, 미국 수학 따로 있고 독일 수학 따로 있지 않다. 그러나 정치·경제 같은 정신과학은 늘 갑국의 정치체도가 꼭 을국에 적용되지 않으며, 갑국의 정책이 꼭 을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 같은 나라에서 자본주의를 택하기도 하고 사회주의를 택하기도 하니 무슨 일정한 법칙이 있겠는가? (72-76쪽)

즉 정신과학은, “확고부동한 원칙이 없으니 이미 완성된 사례로 미래를 추론할 수도 없어서” 예측이 불가능한지라, 엄밀과학과 구별되고, 따라서 인과율의 지배 영역 바깥에 있다는 것이다.³⁶⁾ 그는 인생관을 이렇게 정의했다.

사회과학은 물론 인생관과 서로 표리관계이지만 사회과학은 그 일부대상이 물질이다.(예컨대 경제학에서 토지나 자본 등). 물질은 고정불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칙을 구할 수 있다. 이것들 이외에 이른바 (이지로)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 곧 내가 말한 인생관이다.

나는 나 이외의 사물과 사람에 대해 항상 변혁시켜 지선(至善)·지미(至美)의 경지에 도달케 하려고 한다. 나는 나 이외의 사물과 사람에 대해 항상 관찰하고 주장하고 희망하고 요구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생관이다. ...(80쪽)

그는 “인생은 정신과 물질 사이에 끼어 있다” 하고, “선—정신, 악—물질” 구도 하에, 사실상 “존천리멸인욕(存天理滅人欲)”을 천명하여 이렇게 말했다.

36) 장군매는 “예측 가능한 사태는 인과율의 지배를 받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미 예측할 수 없는 이상 무슨 인과율을 논할 수 있겠는가?”(79쪽)라고 말했다. 또 그는,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에서 부정했던 “자유의지”를 『실천이성비판』에서 인정했던 사실을 들어, 인과율이 윤리 등 정신과학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거듭 주장하여, “인과율로써 일체를 개괄하려고 하면 인생 현상 중 예컨대 참회, 사랑, 책임감, 희생정신처럼 도덕 방면에 속하는 것들은 해석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칸트도 두 분야로 나누어 윤리에 관련된 것은 자유의지의 범위에 들고, 인식에 관련된 것은 인과율의 범위에 든다고 하였다”(93쪽)라고 말했다.

이른바 ‘선(善)’은 모두 정신의 표현으로서 예컨대 법제, 종교, 도덕, 미술, 학문 같은 부류이다. 이른바 ‘악’은 모두 물질과 관련된 것으로서 예컨대 간음, 노략질 같은 부류이다. 고금을 통해 대사상가들은 항상 물질과 정신의 부조화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마침내 깊은 사색을 통해 하나의 학설을 터득하여 대중에 선포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공맹이래 육왕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경우 플라톤이래 마르크스에 이르기까지 주장 내용은 저마다 다를지라도 그 어느 하나인들,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舍己爲人) 인류의 해방을 도모하지 않은 것이 있었던가? 인류의 목적은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지만 변하더라도 악에 나아가지 않고 선에 나아갔으니 그렇게 진행된 까닭은 지극히 심오하여(玄妙) 헤아릴 수 없다. (84쪽)

그의 진단에 따르면 “근 300년의 서구는 이지에 대한 믿음, 물질에 대한 믿음이 과도하여 1차 대전에서 극에 달했고 마침내 오늘날의 대반동을 야기했으며”, “중국은 개항이래 물질상으로 군비 증강을 정책으로 삼았고 정신상으로 과학만능주의를 신앙으로 삼아 왔으나, 시대를 보건대 발전이 극하여 장차 몰락하는(物極將返) 지경에 이르렀다.”(101쪽) 따라서 “과학 교육을 고수하면 기껏 발명이나 공업·상업에 의한 부의 추구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계급 전쟁이요 사회혁명을 초래할 뿐이니” “그런 서구의 실패한 전철을 하필 우리가 굳이 따를 필요가 있는가?”(108쪽)라고 반문했다.³⁷⁾

장군매의 주장에 따르면, 과학의 남용이 야기하는 손해를 피하려면 현학으로 과학을 통솔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의지와 행위로 우주 실재의 변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시대 정신이다.(유장림, 396쪽)

장군매는 “과학은 결코 인생을 지배할 수 없으므로, 부득불 과학이 아닌 다른 것, 철학이나 현학(형이상학)에서 일종의 해석을 구할 수밖에 없다”(102쪽)

37) 인생에 대한 과학의 영향을 장군매는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지금 사람들은 과학을 숭배하여 물질숭배주의가 성행했고 서로 살육하는 전쟁을 초래했다. 과학을 인생에 응용하게 되면 인생은 취미가 없어져 마치 기계처럼 되어 정신상의 위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장군매는 “베르그송의 주장에 리학을 선양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진정 동·서의 인심이 은연중에 부합한 것이다”고 여겼다.(118-9쪽) 따라서 그는 “감히 제군에게 고하건대 내가 말한 것은 결코 잠꼬대가 아니고 구미의 지식계의 신 학자들은 모두 이미 내가 말한 새로운 길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